

# 한국 · 중국 ·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

유 현 정  
배화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겸임교수

##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on Pattern Featured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Dress

**Hyun-Jung Ryu**

Adjunct prof. Dept. of Fashion Design, Baewha Women's University  
(2010. 3. 4. 접수; 2010. 4. 12. 수정; 2010. 4. 23.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data and to help understanding of patter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dress.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the study of academic literatures as well as practical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about actual works. The summary of this study's results is like followings.

First, standard of Pattern are nature, mam-made in motif object, Naturalistic, Geometric, Stylized, Abstract in motif express, Order, Disorder in pattern express.

Second, a point of sameness of motif object in traditional dress of three nations were that nature and letter abstractive of mam-made is a lot. but motif of Japan was used in daily life motif of mam-made which was not in Korea and China

Third, commonly, motif expression of three nations were developed Naturalistic, Stylized. but in Naturalistic, Korea was simple, plane, China was three-dimensional, Japan was expressed super realism.

Fourth, as formative aesthetic of Pattern, Korea is natural, plane, simple and symbolic, China is gorgeous, three-dimensional, immaculacy, filling and symbolic, Japan is delicate, complicated, decoration and symbolic.

**Key Words:** Formative characteristic(조형적 특징), Formative aesthetic(조형미), Traditional dress  
(전통복식), Pattern(문양)

## I. 서론

서구시각의 획일적인 미적 기준은 20C 후반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와해되어 자국의 문화가치를 되찾으려는 움직임들이 각 국가별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정보 통신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타 문화 간의 교류 또한 활발해져 타국, 타민족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되어 패션에서의 에스닉 트렌드는 하위문화의 의미를 벗어나 이미 주요 트렌드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동아시아인 한국, 중국, 일본풍의 에스닉 트렌드가 동양풍을 대표할 만큼 국제무대에서 빈번히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이진민<sup>1)</sup>은 패션의 국가 정체성과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형식과 장식성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문양은 동일한 문화권내에서 보편적 특성과 함께 민족적 성격이 부여된 고유성을 내포하므로 복식문화의 차별성 고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였다. 유현정<sup>2)</sup>은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를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로서 문양의 우세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리글(Alois Riegl)과 보링거(Wilhelm Worringer)는 장식예술의 대표물을 문양으로 보면서, 장식의 본질이란 민족의 예술의욕을 가장 순수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절대적인 개성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범례<sup>3)</sup>라 했다. 이에 임영주<sup>4)</sup>는 인류의 모든 조형 예술에서 문양은 상징수법으로서 각 지역, 민족, 시대의 정서와 문화적 성격이 가장 순수하게, 가장 명료하게 함축되어 표현된 집합체라고 한 바 있다. 요컨대 문양은 민족의 혼을 담아내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며, 시대와 민족을 대신하는 조형기호<sup>5)</sup>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패션에서 자국의 문양 사용이 자국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대에서 동아시아의 문양이 등장할 때 세계무대에 먼저 등장한 일본문양으로 해석되거나 특정 문양일 경우 중국문양으로 인식되는 등 우리나라 문양이 정체성 없이 혼혈문화로서 치부된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라도 한·중·일 삼국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판단되었다. 또

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각 나라들의 다양한 기법과 모티프에 대한 문양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삼국의 패션에 나타난 문양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극히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같은 유교와 한자 문화권 있었던 한·중·일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특징들을 연구자가 제시한 문양을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이들을 비교 분석하여 동아시아 삼국복식의 문양에 대한 기호 경향과 조형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문양에 대한 중요도와 이해를 높이고, 삼국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어 문화산업에 문양을 적용할 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적연구를 병행하였다. 특히 실증적 연구의 자료는 서적, 복식사 전문서적, 학위논문, 미술서적, 인터넷 등에서 시기적으로 각 나라마다 전통복식의 범위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복식 중 자수, 직조, 프린팅, 염색 등으로 문양을 이루고 있는 여성복 작품들만을 추출하였다.

## II. 문양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문양의 개념

문양은 물건의 거죽에 나타난 특정 모양, 옷감이나 조각품 따위를 장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면에 나타난 형상<sup>6)</sup>이다. 패션디자인에서 문양과 유사한 용어인 ‘무늬’는 일반적으로 문양과 동의어로 사용<sup>7)</sup>된다. 문양은 모티프(motif)와 패턴(pattern)의 상위 개념으로서 영어로 옮기면 패턴(Pattern)<sup>8)</sup>이 된다. 따라서 문양은 장식의 기능으로 2차원상의 바탕위에 얹힌 새로운 미적 조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문양이 바탕과 관계되어 있는 개념이라면 모티프와 패턴은 바탕과 관계없이 바탕 위에 새롭게 추가되어 생성된 조형체 자체에 대한 개념으로서 문양의 하위개념에 속한다.<sup>9)</sup> 사전적으로 모티프란 어떤 사물을 움직이는데 근본이 되는 원동력을 의미하여 주제, 작의(作意), 의장(衣

裝),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창조 원동력의 주된 요소, 음악 형식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기도 하며, 여러 예술 영역에서 핵심을 이루는 기본적인 작은 단위를 일컫는 용어<sup>10)</sup>이므로, 패션 디자인에서 모티프는 문양을 이루는 기본단위의 형태인 문양의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로 정의할 수 있겠다. 패턴은 모티프가 모여서 이루는 전반적인 형태<sup>11)</sup>나 배열을 뜻하며, 반복된 문양이 하나의 조형단위를 이루는 형태<sup>12)</sup>를 지칭한다. 따라서 패턴은 모티프가 일정한 형태나 양식으로 재구성된 전체의 스타일을 의미한다.

## 2. 문양을 보는 시각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문양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문양을 배치하고,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느냐를 분명하게 의도하였다. 따라서 적합성에 따라 변화 과정을 거친 문양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문양을 보는 시각들이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자는 문양을 보는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 문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백집세이<sup>13)</sup>는 모티프의 표현법으로 자연적, 기하학적, 양식적, 추상적으로 구분하였고, 전천혜<sup>14)</sup>는 우리나라 여성 양복지에 사용된 문양 모티프의 형태에 따라 구상 모티프와 추상 모티프로 구분하고 구상 모티프에는 동물, 식물, 인공물로, 추상 모티프에는 정형, 비정형으로, 패턴에서는 all-over, 2방 연속, 4방 연속, 산점(散点), 충전(充墳)으로 분류하였다. 장수경<sup>15)16)</sup>은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하여, 표현대상에 따라서는 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기하문, 복합문, 기타문의 7가지로 분류하였고, 모티프의 표현으로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 장식형으로 분류하였다. 데이비스<sup>17)</sup>은 모티프의 원천에는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 상상력, 상징성으로, 연출에 따라서는 사실적인 것, 양식화 된 것, 추상적인 것, 기하학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패턴에 대해서는 전방, 4방, 2방, 1방, 가장자리, 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은영<sup>18)</sup>은 문양을 모티프 형태의 원천으로는 자연물, 인공물, 상상력, 상징

성으로, 모티프의 표현방법에 따라서는 사실적, 약화, 기하학적, 추상적으로, 패턴은 전방향, 4방향, 2방향, 1방향, 식서방향, 공간배열 방향으로 유형화 하였다. 정연운<sup>19)</sup>은 패턴을 규칙적, 불규칙적으로 보았다. 위의 문양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문양은 크게 모티프 대상, 모티프 표현, 모티프 배열법인 패턴의 표현으로써 문양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모티프 대상, 모티프의 표현, 패턴의 표현이 문양 연구에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문양을 보는 시각으로 모티프 대상의 동물문, 식물문, 무생물문 등의 자연문, 사물문과 추상문을 포함한 인공문, 모티프 표현의 사실형, 양식형, 기하학적형, 추상형, 모티프의 배열을 뜻하는 패턴 표현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분류하였다.

모티프 대상은 그 원천에 따라 자연문은 꽃, 잎, 나무 등의 식물문과 새, 토끼, 용 등의 동물문, 그리고 해, 달, 별 등의 무생물문 등이 있으며, 인공문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 비행기, 자동차, 집, 악기, 문자, 도형 등의 사물문과 모티프 대상의 원천이 시각적 영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자나 가문과 민족을 상징하는 추상문이 있다.

모티프 표현의 사실형은 사진의 방법처럼 대상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거나 모방하는 것이며, 양식형은 문양의 대상을 생략, 단순화, 평면화 또는 과장시키는 것으로 그 변형 정도는 사물의 실제모습을 인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기하학적형은 문양의 대상을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직선, 원, 사각형, 삼각형 등과 같이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하여 사물을 묘사한 것으로써 줄무늬, 격자무늬, 물방울무늬 등이 이에 속한다. 추상형은 대상의 실제 형태와는 전혀 무관한 비묘사적인 방법으로 디자인 되어 대상을 인지할 수 없는 정도로 변형된 형태이다. 완전한 상상력과 창의력에 의해 표현되며, 형태변화의 제약과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특징을 갖는다.

패턴 표현은 모티프의 배열이 특정한 법칙을 유지하며 질서나 정해진 틀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두어 일정한 방향성과 반복성에 질서가

있어 다음 모티프의 종류, 방향, 위치 등이 예측 가능한 것을 규칙형으로 보고, 이와 상반된 경우로 다음 모티프의 종류, 방향, 위치 등이 예측 불가능한 것을 불규칙형이라는 기준을 정하였다. 단 하나의 모티프가 전체 문양으로 확대되어 있을 경우는 불규칙형이라 정리하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문양의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문양의 조형적 특성

문양을 보는 시각	모티프 대상	모티프 표현	패턴 표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문</li> <li>-식물문</li> <li>-동물문</li> <li>-무생물문</li> <li>인공문</li> <li>-사물문</li> <li>-추상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형</li> <li>양식형</li> <li>기하학적형</li> <li>추상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칙형</li> <li>불규칙형</li> </ul>

### III. 한국 · 중국 ·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

한국 · 중국 ·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138점, 73점, 89점 들을 수집하여 앞에서 제시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 1. 한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

한국 전통복식은 개화기 이전의 한국인들이 입었던 한국복식을 통칭하나. 학문적으로는 주로 조선후기 복식을 의미하고, 상대 시대부터 개화기까지의 복식은 한국의 복식<sup>20)</sup>이라 구분한다. 조선 후기는 서구문명이 유입되기 전으로 서양복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복식고유의 미적 특성을 나타내기에 전통복식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sup>21)</sup> 따라서 한국의 전통복식은 조선후기라는 범위 안에서 살펴보았다.

한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 모티프는 유교적이거나 무속주술적인 것이 혼합되어<sup>22)</sup> 있으

며, 동식물문을 포함한 자연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식물문으로는 부귀를 상징하는 <그림 1>의 모란, 다산과 다남을 나타내는 <그림 7>의 석류와 <그림 8>의 포도넝쿨, <그림 5>의 연꽃 등이 있으며, 동물문으로는 <그림 2, 3>의 봉황, <그림 6>의 꿩 처럼 권위를 나타내거나, 행복을 상징하는 <그림 1>의 나비,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 4>의 해, 산, 물, 돌, 소나무, 구름, 불로초, 사슴, 거북이, 학 등의 상징적 모티프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십장생 모티프 등이 있다. <그림 5>의 활옷은 신부복으로 새 삶에 대한 희망과 행복의 염원을 담아 장수와 길상을 뜻하는 물결, 바위, 불로초, 연꽃, 모란, 원앙 등의 동식물과 장생과 길상의 문자들이 가득 있다. 인공문으로는 <그림 9, 10>처럼 수(壽), 복(福), <그림 11>의 만(萬), 아(亞)등의 문자<sup>23)</sup> 본연의 의미를 담아 직접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갖는 추상문으로 발달했다. 만(萬)은 불교의 상징으로 서민들의 복식에서 자주 나타나며, 아(亞)는 너문이라고도 하며 주요문양 보다는 보조문양으로 자주 사용되었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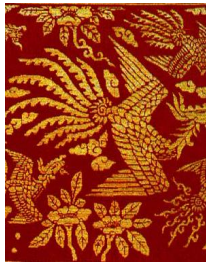
모티프의 표현은 크게 사실형과 양식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림 1, 5, 6>처럼 사실형은 사실성보다는 대상의 형태에 근거를 두어<sup>25)</sup> 다소 간략화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적 표현이 눈에 띄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지양하려는 의도에서 사실화를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모티프의 반복이 이루어 질 때 <그림 1, 3, 6>처럼 하나의 모티프라도 최대한 다양한 모습과 각도에서 보여주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이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려고 한 것과 그 안에서 다양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림 3, 7, 8>과 같이 양식형은 자연의 형태에서 왜곡이나 과장 없이 평면적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자연을 두드러지지 않는 소박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추상형인 문자 모티프는 <그림 9, 10, 11>처럼 바탕과 모티프의 색채와 소재가 유사하거나 작은 모티프로 전면에 사용되기에 드러나지 않는 은은함과 소박함을 나타낸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복에 금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금색의 화려함을 조금이라도 감추어 드러나지 않으려는 평면적 표현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다. 문



<그림 1> 모란과 나비



<그림 2> 봉황



<그림 3> 스란의 봉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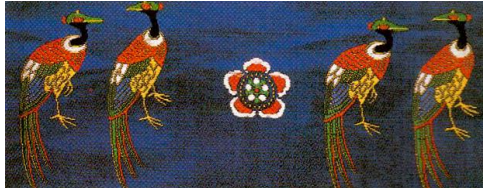


<그림 4> 십장생



<그림 5> 연꽃과 원앙

- <그림 1> www. blog. 한복을 사랑하는 우리옷 연구실. 2009.12.10  
 <그림 2> 유송옥(1998), 한국복식사, p.187.  
 <그림 3> www.culture.go.kr 2009.12.10  
 <그림 4> www. blog. Ibid. 2009.12.10  
 <그림 5> 유송옥(1998), Ibid. p.273.



<그림 6> 꿩



<그림 7> 석류

- <그림 6> 김영자(2009), 한국복식미탐구, 경춘사, p.208  
 <그림 7> 유희경(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257



<그림 8> 포도냉쿨



<그림 11> 만(∞)



<그림 10> 복(福)



<그림 9> 수(壽)와 복(福)

- <그림 8> 문화관광부(2000), 우리옷 이천년, 미술문화, p.96  
 <그림 9> 황선진외(2009), 패션과 문화, 교문사, p.49.  
 <그림 10> 임영주(2004),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p.27.  
 <그림 11> www.culture.go.kr. 2009.12.10.

자 추상형은 사각형이나 원형의 외곽 틀에 맞추어 기하학적처럼 변형되며, 문자 바탕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꽃, 구름, 박쥐 등의 양식형 모티프들과 동시에 존재하여 기하학형의 단조로움을 상쇄시킨다.

패턴은 화려한 문양으로 전면이 채워져 있는 <그림 4>의 활옷이나 적의 등의 대례복을 제외

하고, 문양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색채의 효과를 최소화하여 드러나지 않으려는 은은한 표현법이 많으며, 일부분만 문양이 등장할 때는 금박과 자수로써 섬세하고 화려한 색채가 사용되어 여백에 의한 미를 전달한다. <그림 2, 4, 5>와 같이 한 가지 모티프 보다 여러 모티프들이 함께 등장하며 강약을 조절한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여러 문양은 함께 사용되지만 각각의 모티프들이 존중되어 겹침 없이 사용된다. 이것은 장식성의 의미보다 문양 하나하나의 상징성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금박과 직조에 의한 모티프일 경우는 추상형이 많고, 모티프의 방향과 위치가 규칙형 배열을 이루나 <그림 2, 8>처럼 사실형의 경우는 주로 자수에 의해 다음 모티프의 방향과 위치 예측이 어려운 불규칙형을 이룬다.

한국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들은 자연적, 평면적, 드러나지 않는 은은함과 소박함, 상징성 등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 후기 정부의 상공업 억제, 상공업자의 천시, 사치를 금지하는 엄격한 제도 때문에 문양을 생성하는 기술발달이 저해<sup>26)</sup>되어 일반서민들의 생활복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예복이나 상류층 복식에서는 화려하고 보다 많은 면적에 문양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2. 중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왔다. 중국의 전통복식은 1911년 신해 혁명 이전의 복식을 칭하는데, 복식사에서는 청대의 복식개혁을 통해 전통복식을 정리하는 개혁이 시행되었고, 청대의 복식을 전통복식의 원형<sup>27)</sup>을 이룬다고 보므로 청대 복식에 나타난 문양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들은 한국과 공

통적인 부분들을 빈번히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식적인 청사관복제도, 혼인관계, 수출입, 문화교류로 부터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왕가의 복식에서 볼 수 있는 모티프 중 <그림 12>의 용, 봉황, 사슴, 학, 박쥐, <그림 13>의 물고기 등의 동물문과 <그림 14>의 연꽃의 모란, <그림 16>의 사군자, 소나무, 당초 등의 식물문, 그리고 구름, 산 등의 자연문이 그러하다. 특히 용모티프에 있어 우리나라의 왕족 남자복식에만 사용하던 것에 비해 왕족이 아닌 여성복에까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한 계급에 용의 모티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하류층의 복식에서도 화려함의 정도차이만 다를 뿐 모티프 대상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반부녀자들의 복식에서도 모티프 종류와 사용된 색상에서 유사한 문양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도교의 영향으로 민간예술이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sup>28)</sup> 중국은 한자의 원국이기에 이웃나라보다 <그림 17>처럼 한자를 모티프로 삼는 추상문의 예가 많이 나타났다.

중국 전통복식의 모티프 표현은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 등 표현이 고르게 나타나 있다. 사실형과 양식형의 동물 모티프일 경우 <그림 12, 13>처럼 다소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천진함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문양의 사용이 즐거움의 하나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모티프의 크기가 <그림 17, 18>과 같이 손바닥 크기 이상으로 크고 둥근 형태로 양식화되어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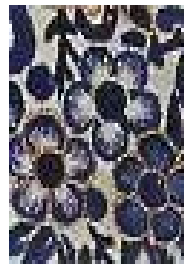
<그림 12> 용



<그림 13> 물고기



<그림 14> 연꽃



<그림 15> 양식형 꽃



<그림 16> 사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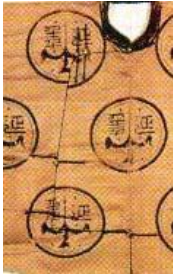
<그림 12> Patricia. R. A., 한국복식학회역(2009), 세계복식문화사, 예담, p.172.

<그림 13> Ibid., p.172.

<그림 14> 김홍기(2009), 샤넬, 미술관에가다, 미술문화, p.56.

<그림 15> Jill Gillow & Bryan Sentance(1999). World Textiles, Tames &Hudson, p.190.

<그림 16> 손경자(1985), 중국복식 5000년, 경춘사, p.422.



<그림 17>  
문자추상형



<그림 18>  
커다란 모티프



<그림 19> 사실문,  
꽉 채워진 문양



<그림 20> 가장자리 강조문

- <그림 17> 황선진 외(1996), 복식문화. 교문사., p.81.  
 <그림 18> Ibid. p.417.  
 <그림 19> Patricia. R. A.(2009), Op. cit. p.170.  
 <그림 20> 황선진 외(1996), Op. cit., p.83.

복되는 예도 많이 등장한다. 사실형과 양식형의 모티프들은 <그림 12, 15>와 같이 측면보다는 정면을 응시하는 방향이 많아 문양의 대상을 보다 적극적이고, 화려하게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형의 모티프의 경우 하나의 복식에 하나의 모티프를 사용하기보다 다양한 모티프들이 함께 어울려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 많은 문양들이 함께 등장하여도 겹침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각각의 모티프들이 상징하는 바를 모두 존중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양식형이 간단하게 정리되기보다 음양이나 색의 농도를 조절하여 사실형에 가깝도록 표현하려 한 점과 금색을 표현할 때 금박보다 두꺼운 금사로 수를 놓은 점이 모두 모티프의 입체화를 표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모티프 크기가 이웃나라보다 비교적 크며, 금색이나 원색 등 화려한 색과 입체적인 표현이 많아 문양을 강하고 화려하게 부각시켜 드러내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추상형 중 한자를 이용한 문자 모티프인 수(壽), 복(福), 희(禧), 귀(貴), 아(亞)<sup>29</sup> 등은 장수, 권력, 부귀, 다산, 다남 등 길상, 만복과 화평의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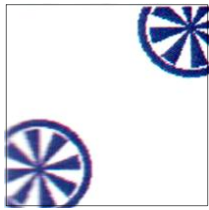
패턴에서는 여백의 미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림 13, 19>처럼 다양한 모티프들이 어울려 전면 전체를 화려하게 꽉 채우고 있으며, 주로 자수에 의해 모티프들을 겹치지 않도록 배치한 불규칙한 배열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앞서미가 앞 중심에 있는 옷은 전면이 균일하게 모티프들이 포진되어 있으나,

<그림 20>의 치파오처럼 앞서미가 거드랑이로 흘러내리는 복식에서는 가장자리를 따라 문양이 강조되고 있었다. 추상형 문자 모티프들은 그 배열법이 특이한데, 예를 들면 여섯 모형을 연속 배치하는 귀갑 문, 마름모형으로 중첩한 방성문, 사각의 형이 되도록 배치하는 사합과 사출문<sup>30</sup> 등 일정한 규칙을 이루거나 상하나 좌우의 대칭 구도로써 규칙적인 패턴의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은 주로 <그림 17>처럼 도장을 찍어놓은 듯 커다란 원형의 형태로써 재해석되어 반복 되었으며, 다음 모티프의 방향과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여백의 미는 적지만, 모티프 배열법인 패턴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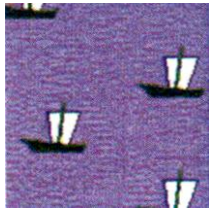
중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들은 화려함, 입체적, 친진함, 채움, 상징성 등의 미를 나타내며, 비교적 반복되는 모티프의 크기가 크고 정면을 향한 방향성을 지니며, 여백이 적고 전면을 채우는 예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3.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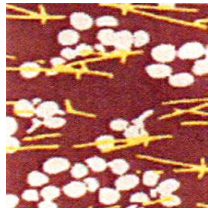
복식사에서 에도시대는 근세에 속하며 현대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기이다. 근대와 현대에 가장 영향을 주고 모태가 되는 시기가 에도시대이며, 일본 전통문화로서 일본인들에게 인식된 것도 에도시대라 볼 수 있으므로<sup>31</sup> 이 시기의 복식을 통해 문양을 살펴보았다.



<그림 21> 수차바퀴



<그림 22> 배



<그림 23> 소나무



<그림 24> 자연 풍경



<그림 25> 자연 풍경

- <그림 21> www4ocn.ne.jp 2009.12.30.
- <그림 22> Ibid. 2009.12.30.
- <그림 23> Ibid. 2009.12.30.
- <그림 24> Patricia. R. A.(2009), Op. cit. p.205.
- <그림 25> 김영자(1998),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p.189.

일본 전통 복식에 나타난 모티프 대상은 자연 문과 인공문이 고르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연문들의 종류가 유사하나 특히 국화, 은행, 매화, <그림 23>의 소나무 등들은 특정 가문을 상징하는 식물문으로 발전하였다는 것과, 풍경화를 보는 듯 한 <그림 24, 25, 26>의 자연풍경 모티프들이나 놀이 문화에 기원을 둔<sup>32)</sup> 사물문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독특한 점은 인공문으로서 <그림 21>의 배, <그림 22>의 수레바퀴, 엽전, 부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문이 흔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서민들의 복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염색기술이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의료문화였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2개 이상의 모티프들이 <그림 27>처럼 모티프의 표현법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중첩을 이뤄 복합문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웃나라들과의 큰 차이점이

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그림 28>의 이kat, 홀치기염, <그림 29>의 봉박, 집박, <그림 30>의 스텐실 등 문양을 제작하는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모티프들은 상징성 외에도 장식적인 측면으로 사용되었다는 예가 될 수 있다.

모티프의 표현을 살펴보면 <그림 24, 26, 31, 34>처럼 과도하리만큼 세심하게 표현하여 사실적 표현 그 이상으로 자세히 표현되고 있으며, 사실형 모티프는 주로 상류층 복식에서 나타나며, 양식형이나 기하학형의 모티프들은 일반서민의 복식에서 주로 나타나 양분된 경향을 알 수 있다. 사실형은 주로 동식물과 자연풍경을 자수에 의해 독자적으로 표현되나 때로는 <그림 26>처럼 기하학적 모티프들과의 중첩을 이루기도 한다. 양식형과 기하학형은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서로를 병치와 중첩하여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복잡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특히 <그림 32, 33>과 같이 가부키 배우들이 고안



<그림 26> 단독패턴



<그림 27> 중첩 패턴



<그림 28> 이kat



<그림 29> 봉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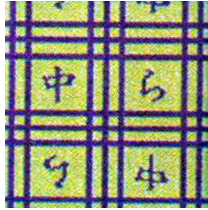
<그림 30> 스텐실

- <그림 26> 허윤주(2005), 일본복식사와 생활문화사, 어문학사, p.102.
- <그림 27> 이자연(2004), 일본여성복식사, 경춘사, p.117.
- <그림 28> Patricia. R. A.(2009), Op. cit. p.202.
- <그림 29> Ibid. p.203.
- <그림 30> Ibid. p.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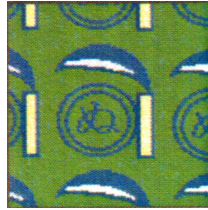




<그림 31> 사실형



<그림 32> 문자와 기하학적형



<그림 33> 문자와 양식형



<그림 34> 커다란 문양

<그림 31> 사실형, Ibid. p.204.

<그림 32> 가부키 배우의 문자와 기하학적형, www4ocn.ne.jp, 2009.12.28

<그림 33> 가부키 배우의 문자와 양식형, Ibid.

<그림 34> Akiko Fukai(2002), FASHION, Taschen, p.301.

한 문양들이 서민층에까지 유행하게 되었는데,<sup>33)</sup> 이들은 기하학적 모티프들 사이에 가나문자와 한자의 문자 추상형 모티프들을 사이사이에 병치하여 표현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의 양식형 문양을 규칙성 있게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금색의 사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금색의 화려함보다 다양한 색과 염색법으로 모티프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검소한 서민문화가 존중받았다고 볼 수 있겠다.

패턴을 살펴보면 이웃나라들과 다른 점을 또 볼 수 있다. <그림 26, 34>처럼 복잡하고 커다란 하나의 모티프가 전체를 메우고 있는 점과 <그림 27, 30, 31>처럼 2개 이상의 모티프들이 서로 엮어 중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옷감을 짤 때 문양을 넣어 짜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본은 옷감이 완성된 후 그 위에 염색, 채색, 자수 등으로 문양을 형성했기에 중첩을 이루는데 유리했다고 볼 수 있겠다.<sup>34)</sup>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섬세한 모티프 일수록 여백의 공간이 많아 여백으로 인한 비대칭을 이루며, <그림 22, 32, 33>처럼 모티프가 기하학적의 경우는 대부분 다음 모티프의 위치와 방향이 예견되는 규칙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가부키 배우들이 고안한 문양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 모티프라는 점, 정리된 양식형과 익숙한 기하학적형을 사용한다는 이유와 더불어 강한 규칙성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쉽게 모방과 전파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들은 섬세함, 복잡함, 장식성, 상징성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겠으며, 한 복식에 다양한 염색기법이 함께 사용된

것도 일본의 문양기술이 뛰어나 다채로운 모티프와 패턴법의 발달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과 타고난 재능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여 더 나은 것을 만들며, 그 일에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자세인 장인정신이 직업윤리로 이어져<sup>35)</sup> 염색인이 천대받지 않은 사회환경으로 염색법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다.

#### 4. 한국 · 중국 ·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

한국 · 중국 · 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들의 공통점은 모티프 대상에는 자연문, 표현에는 사실형과 양식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한자를 이용한 문자 추상문이 발달 하였으며, 패턴 표현에서 문자 모티프는 규칙형, 이 외는 불규칙형을 이루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티프 대상에서 한국과 중국은 인공문에는 문자 추상문만 존재하였으나, 일본은 인공문 중 추상문 외에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사물문이 많이 나타났다. 모티프 표현에서 한국은 사실형을 간략화, 평면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런 다양한 모습 담고 있으며, 양식형은 다양한 각도로 표현된 반면, 중국은 사실형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방향은 정면을 주시하며, 모티프 크기가 이웃나라들에 비해 컸다. 일본은 사실형을 극사실적 표현하고, 기하학적 표현 또한 다수를 이루었다. 패턴의 표현으로 한국은 여백의미를 중요시하며, 중국은 전면을 채우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일본은 모티

<표2> 한국·중국·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

		한국	중국	일본
공통점		-모티프 대상은 자연문, 표현은 사실형과 양식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인공문 중 한자를 이용한 문자 추상문이 발달. -패턴 표현에서 문자 모티프는 규칙형, 이 외는 불규칙형.		
차이점	모티프 대상	-인공문에는 문자 추상문만 존재.		-인공문 중 추상문 외에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사물문이 많이 나타남.
	모티프 표현	-사실형을 간략화, 평면적 표현 자연스런 다양한 모습 담음. -양식형은 다양한 각도로 표현됨.	-사실형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방향은 정면을 주시하며, 모티프 크기가 이웃나라들에 비해 큼.	-사실형을 극사실적 표현 -기하학적 표현 다수.
	패턴 표현	-여백의 미를 중요시.	-전면을 채우려는 경향.	-모티프들이 중첩을 이루고 있음.
조형미		-자연적, 평면적, 은은함, 소박함, 상징성의 미	-화려함, 입체적, 친진함, 채움, 상징성의 미	-섬세함, 복잡함, 장식성, 상징성의 미

프들이 중첩을 이루고 있다.

조형미를 살펴보면 한국은 자연적, 평면적, 은은함, 소박함, 상징성의 미를, 중국은 화려함, 입체적, 친진함, 채움, 상징성의 미를, 일본은 섬세함, 복잡함, 장식성, 상징성의 미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 IV. 결 론

한국·중국·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같은 유교와 한자 문화권 있었기에 이들의 문화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구별 없이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위논문 조차 혼돈이 있음을 볼 때 삼국의 문양에 대한 정체성 파악이 시급하다 판단되었다.

한국·중국·일본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 조형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양을 보는 시각으로 모티프 대상의 동물문, 식물문, 무생물문 등의 자연문, 사물문과 추상문을 포함한 인공문, 모티프 표현의 사실형, 양식형, 기하학적, 추상형, 모티프의 배열을 뜻하는 패턴 표현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모티프 대상을 살펴볼 때 삼국은 공통

적으로 자연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한자를 이용한 문자 추상문이 발달하였으나, 큰 차이점으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없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사물문이 많이 나타났다.

셋째, 모티프 표현을 살펴볼 때 삼국은 공통적으로 사실형과 양식형이 주를 이루지만 사실형의 경우 한국은 간략화, 평면적으로, 중국은 입체적으로, 일본은 극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한국의 모티프는 자연스런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고, 중국은 정면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티프의 크기가 이웃나라들에 비해 컸다. 기하학형의 경우 한국과 중국은 그 수가 매우 적었으나, 일본은 수많은 형태가 나타났다.

넷째, 패턴 표현을 살펴볼 때 삼국은 공통적으로 문자 모티프의 경우는 규칙형을 나타내고, 이 외의 모티프들은 불규칙형을 나타내었다. 특히 커다란 하나의 모티프로 공간배열을 하고 있는 패턴과 여러 모티프들이 중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본 패턴의 큰 특징으로 문양의 상징성 외에 장식성을 함께 지닌다고 하겠다. 한국은 여백의 미를 중요시해 대례복을 제외하고는 문양보다 여백이 많으나, 중국은 여백 없이 전면을 채우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여러 문양이 중첩되는 가운데도 복잡할수록 여백의 미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삼국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미를 살펴보면 한국은 자연적, 평면적, 드러나지 않는 은은함과 소박함, 상징성 등의 미를 나타내고, 중국은 화려함, 입체적, 친진함, 채움, 상징성 등의 미를 나타내며, 일본은 섬세함, 복잡함, 장식성, 상징성의 미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삼국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에 대한 기호 경향을 파악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고자 하였기에, 각 항목을 수치상으로 많고 적음을 파악하려는 우열의 의도가 아니었기에 양적표기를 하지 않았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자가 사례들을 추출하는데 있어 자료가 될 사례들을 놓쳤을 가능성과 연구자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주관적인 해석의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중국·일본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비교 분석으로 국가 이미지를 나타내는 문양에 기초자료가 되고, 문화산업분야에서 문양 활용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이진민 (2005). 한·일 여성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20, p.29.
- 2) 유현정 (2010).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의 조형성과 디자인 요소.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1)*, p.58.
- 3) 권원순 (1982). *추상과 감정이입*. 계명대학교 출판부, p.69.
- 4) 임영주 (2004). *한국의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p.27.
- 5) 김영자 (2004).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183.
- 6) www.daum.net. 검색어 '문양': 검색일 2006. 10.7.
- 7) 이호정 (2002).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116.
- 8) 유현정 (2009). 문양 이미지에 관한 연구 1. *복식 59(2)*. p.30.
- 9) Ibid., p.30.
- 10) 라사라 교육 개발원 (1995). *복식대사전*. 라사라 출판사, p.375.
- 11) 이은영 (1997).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p.286.
- 12) 이정주, 한명희, 최원경 (2000). *텍스타일 기획과 디자인*. 서울: 신광출판사, p.107.
- 13) McJimsey, H.T (197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p.175-178.
- 14) 진천혜 (1977). 우리나라 여성 양복지 문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0-22.
- 15) 장수경 (1994). 한국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지 2(2)*, pp.283-295.
- 16) 장수경 (1999). 한국전통문양의 종류, 표현유형, 구성형식 및 적용대상에 따른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8.
- 17) Marian L. Davis, 이화연 외 역 (1990). *복식의 시각 디자인*. 서울: 경춘사, pp.202-204.
- 18) 이은영 (1997). Op. cit., pp.286-291.
- 19) 정연운 (2008). 민속복식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조형적 특성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
- 20)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
- 21) 이진민 (2005). Op. cit., p.34.
- 22) 백영자 (1996).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p.406.
- 23) 정연운 (2008). Op. cit., p.24.
- 24) 백영자 (1996). Op. cit., p.407.
- 25) 정연운 (2008). Op. cit., p.24.
- 26) 백영자 (1996). Op. cit., p.417, 423.
- 27) 왕애령 (2007). 현대 중국풍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6-40.
- 28) 신민 (2001). 한·중 전통문양의 비교연구. *한국공예논총 4(2)*, pp.311-322.
- 29) 왕애령 (2007). Op. cit., p.54.
- 30) Ibid., p.55.
- 31) 사사키 차가 (2009). 현대 패션에 표현된 일본 에도시대 복식의 미적가치와 조형적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

- 32) 이경은 (2003). 오리엔탈리즘 패션의 컬러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3.
- 33) 사사키차가 (2009). Op. cit., p.109.
- 34) 양지나, 이상은 (2009). 일본 우끼요에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2)*, p.150.
- 34) www. daum.net. 검색어 ‘일본의 장인정신’: 검색일 2010. 2.20.